

게임등급 심사수수료 또 4.5배 인상 추진! 게임개발사가 봉인가?

1. 게임등급 심사수수료 현황

- 게임물등급위원회는 <게임산업진흥법> 제16조제2항의1에 의거,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<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 심사수수료 인상 연혁>

△ 1999년 게임등급 심사수수료 책정
△ 2009년 4월, 게임등급 심의수수료 인상
☞ 게임물등급위원회는 '08년 12월 심의수수료를 10배 이상 인상 결정
☞ 대신 <중소기업 감면제도>를 도입
-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총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 30% 할인 함.
△ 2010년 9월, <u>현행 수수료보다 평균 4.5배 인상된 심의수수료(안) 발표</u>
☞ 지난 6월 <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분석 및 원가산정 등에대한 연구용역>발주, 9월 말 인상된 심의수수료 안을 발표(평균 448% 인상)
☞ 인상 사유는 2009년 12월, 국회 문방위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을 논하는 과정에서 '게임물 등급분류 비용의 <수익자부담원칙>에 따라 계등위가 원가산정 및 게임위의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를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정한다'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힘.

- 게임등급 심의수수료 최소 100%에서 최대 951%, 평균 448% 인상 계획

< 게임 등급 심의수수료 인상안 비교 >

구 분	(현)심의수수료		2011년 심의수수료(안)		인상률
PC(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)		240,000원		783,600원	227%
콘솔		280,000원		559,600원	100%
포터블	전용게임기	200,000원		518,900원	159%
	모바일	60,000원		356,000원	493%
기타 (IPTV, 플래시, 다운로드 게임)	10MB 미만	30,000원	10MB 미만	315,300원	951%
	10MB~100MB	40,000원	10MB~100MB	417,100원	943%
	100MB~300MB	80,000원	100MB~300MB	518,900원	549%
아케이드		320,000원		824,300원	158%

2. 게임등급 심사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

-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밝힌 기관의 연간 유지비용은 약 80억원(국고 60억)원임. 전체 유지비용의 20% 약 16억 정도가 직·간접비 심사비용. (2007년도 연공역결과보고)
 - 계등위가 기재부에 보고한 2009년 경영고시에서 밝힌 지출 내역을 보면, ▲회의운영사업(3억1200만원), ▲심의종합정보시스템(1억9800만원), ▲통합관리시스템구축(9억4600만원), ▲오픈마켓심의시스템구축(5300만원) 등임.
- 등급심사와 관련된 시스템운영 등 비용이 대략 16억원 소요. 지난 해 한차례 심의수수료를 인상해서 수입액이 12억6천만원.

<게임심의 예산 및 수익 현황>

구분	'07	'08	'09 (4월 수수료 인상)	'10(8월말)
예산	10억원	8억5천만원	11억3,500만원	14억9,300만원
수익	5억2천만원	5억6천만원	12억6,500만원	7억1천만원
심의 횟수	3,534건	3,682건	3,936건	2,431건

- 2009년 계등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3,660건, 월평균 305건으로 관련 심의 수수료는 12억6,500만원이고,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신청건수는 2,431건, 한 달 평균 303건 정도 접수.

질의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9년 4월 1999년 책정된 당시 게임등급 심의수수료를 약 10배가량 인상했는데, 1년6개월만인 지난 9월 또다시 무려 4.5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음.

내용을 들여다보면, 플랫폼별 최소 100%에서 최대 951%까지 인상한다고 되어있는데,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안인데,

현재 정부는 게임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, 2012년까지 세계3대 게임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, 현재 시행중인 심의수수료도 영세한 게임업체들은 개정 심의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또 다시 평균 450%나 인상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됨.

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받는다 해도 영세한 기업에 수수료 인상은 상당한 타격으로 게임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 우려되는데, 과연 수수료 인상이 게임산업 진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?

게임업계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데, 이러한 차원에서 추가로 게임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하지 않겠는가? 동 안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?

질의2 2009년 4월 심의수수료 인상 시, 게임업계 측은 심의수수료 인상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했다고 함. 이번 인상안에 대하여 게임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할 의사가 있는가?